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For Immediate Release: 2012년 6월 4일 월

CUOMO 주지사, 주의 형법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 수 천명의 뉴욕커들을 불필요한 경범죄 혐의에서 구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발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의회 의원들과 지방 검사 및 사법 사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량의 마리화나를 개인적 및 공적으로 소유한 데 대한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여 뉴욕주 형법에 일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 법률은 불균형적으로 흑인 및 라틴 아메리칸 젊은이들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 천 명의 뉴욕커들을 불필요한 경범죄로부터 구제할 것입니다.

“소량의 마리화나 소유를 다루는 방법에 뻔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저희 법에 공정함과 일관성을 더하는 것에 관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록에 결국은 영구적인 오점을 남깁니다. 이 혐의는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더불어, 저희들은 뉴욕주를 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만들며, 모든 뉴욕커가 나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사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주 의회 의장 Sheldon Silver는,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이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처럼 법의 논리적이고, 공교롭게도, 필요한 설명입니다. 마리화나 소유가 이전에 범죄의 유죄 판결 기록이 없는 수 천 명의 젊은 시민들의, 주로 유색 인종들의, 기록을, 유감스럽게도, 영구히 흔적을 남기고 더럽히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지나치며, 저희들은 이 사안을 신중하고 빨리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흑인, 푸에토리코인, 라틴 아메리카인 및 아시안의 입법 간부회의 의장인, 주의회 의원 Karim Camara는, “저희들은 저희 사법 제도에 공정함을 가져다 주고자 하는 Cuomo 주지사를 격찬합니다. 이 법률은 공식적이든 개인적이든 소량의 마리화나의 소유는 경범죄가 아닌 위반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경범죄는 너무 많은 뉴욕커들, 특히 소수 민족 젊은이들,의 미래를 끌어내려 주 전역의 커뮤니티를 타락시켜왔습니다. 주지사는 법을 적절히 업데이트하여 모든 뉴욕커들이 더 안전하고 강력한 주를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회 의원 Hakeem Jeffries는,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중죄에 대한 기소로 명예를 손상시키면서 불필요하게 수 천 명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법률 집행 리소스에 수 백만 달러를

Korean

낭비시키는 현 관례를 종결시키기 위해 마리화나 소유와 관련한 형벌을 표준화하는 법률을 제출하였습니다. 수년간 불균형적으로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인 젊은이들에 달하는 수 천 명의 뉴요커들이 불필요한 경범죄에 기소되어 향후 직업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법 집행과 커뮤니티 사이 긴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들이 이를 영구히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서 적절히 처벌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법 아래 모든 뉴요커들을 정당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국장 **Raymond W. Kelly**는, “이 제안된 법률은 균형 잡힌 접근법을 취하고, 작년 이 문제에 관해 제기된 뉴욕시 경찰청의 작전 명령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나아가 뉴욕시 경찰청이 진행 중인 삶의 질 적용은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데 대한 벌금을 유지시킴으로써 유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현 형법상 공공 장소에서 25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자는 B급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량의 마리화나를 개인적으로 소지함은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 장소에서건 개인적으로건 모든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으로 취급합니다.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여전히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977년 **Hugh Carey**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마리화나 개혁안은 개인적인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최초 마약 사범의 경우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마리화나 사용이나 소지는 여전히 경범죄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 후 몇 년 동안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체포는 1990년 약 2,000건에서 오늘 50,000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 매년 발생하는 체포의 94%가 주로 뉴욕시에서 일어납니다.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관련 체포를 점점 더 강조함은 소수 민족 젊은이들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년 뉴욕주에서 체포된 개인 사범 중 50% 이상이 25세 이하이며, 82%가 흑인이거나 라틴 아메리카인이었습니다. 체포된 총 53,124명 중 10% 미만이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은 소수는 물론 체포된 자들은 모두 향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지장을 주는, 그들의 기록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Cyrus R. Vance, Jr. 맨하탄 지방 검사는, “안전과 공정함은 저희 형사 사법 제도의 쌍둥이 기둥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Cuomo** 주지사가 제안한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간단하고 공정한 변화로 저희들은 중요한 리소스를 가장 폭력적인 범죄자와 가장 심각한 범죄 사건들에 전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arles J. Hynes 브루클린 지방 검사는, “저는 **Cuomo** 주지사의 마리화나 법 변경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법은 마약 관련 범죄에 좀 더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데 큰 효과가 있으며, 저희

커뮤니티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보완할 것입니다. 이는 법 집행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의 이 문제에 대한 지도력을 격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카운티 지방 검사 Richard A. Brown은, “이 제안된 법률은 법 집행의 필요성과 커뮤니티의 우려 사항이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법 집행관련 동료들과 함께 저희 형사 사법 체도를 좀 더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주지사의 법률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롱스 지방 검사 Robert T. Johnson은, “간단히 말해 이 법은 “대중의 견해”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주 의회는 이미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가 저희 사회의 미미한 관심임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법을 일관성 있게 만들며, 커뮤니티와 법 집행 사이 신뢰를 약화시키는 많은 체포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aten Island 지방 검사 Daniel M. Donovan Jr.는, “주지사는 이 수정안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저와 다른 검사들이 가진 몇몇 우려 사항을 신중히 다루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 장소에서 공공연히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소란을 계속해서 다룰 것이며, 경찰관들이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막지 않아 중죄를 지는 사람들이 단순히 티켓만 받고 달아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반면, 저는 NYPD (뉴욕시 경찰청)이 몇몇 리소스를 재분배하여 더 심각한 범죄를 다루고, 계속해서 뉴욕시를 미국내 가장 안전한 큰 도시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Nassau 카운티 지방 검사 Kathleen Rice는, “Cuomo 주지사는 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장려하는 이 형법의 상식적인 개혁안을 통해 커뮤니티의 법 집행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저희들의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경찰관들이 더 심각한 범죄에 집중하면서 저희 거리를 계속해서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주지사의 노고를 격찬하며, 이 필요한 변화의 실행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친절한 순찰 경관 연맹 회장 Patrick J. Lynch는, “적절히 멈추게 해야 한다고 알려진 밀수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변화시키라는 주지사의 요청은 심문 및 복장 검사를 이해되게 하며, 경찰국장에 의해 발행된 최근 정책의 변화와 병행합니다. NYC PBA (뉴욕시 친절한 순찰 경관 연맹)는 그 멤버들에게 특정한 경우 경찰의 책임에 대한 이 명확하고 정확한 지시를 많이 지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마약 정책 연맹 국장 Gabriel Sayegh는, “지나친 처벌은 저희 사법 체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인생을 망치고, 불필요한 노력에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며, 커뮤니티와 법 집행 사이 불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점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공공 장소에서, 특히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서, 소지한 건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Cuomo 주지사의 법률로 이 부당함은 곧 과거 지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사법 체도를 모든 뉴욕커들에게 더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주지사의

지도력과 지속적인 노고는 격찬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 연맹 사무 총장 Donna Lieberman은, “저희 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커뮤니티와 법 집행은 파트너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범죄에 대한 과도하게 심한 변화는 이 파트너십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바로 이 점이 Cuomo 주지사의 법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법률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공공 장소 및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데 대한 형벌을 만들어 커뮤니티와 법 집행 사이 신뢰를 회복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뉴욕주는 이 법률로 더 안전한 주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